

# ‘자금조달-부채율 하락’ 두토끼 신종자본증권 ‘붐물’

**비금융기업 신종자본증권 관심 ↑**  
기존주주 지분희석 없이 자본확충  
재계, 재무구조개선 카드로 기대감

신종자본증권 (Hybrid securities) 이 기업의 자금 조달 통로로 떠오를 전망이다. 재무구조 개선이 시급한 일부 대기업과 신용등급 A 이하 기업들에게 ‘신종자본증권’은 너무나도 매력적인 상품이다. ‘자금조달 및 부채비율 하락’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을 수 있는 묘안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회사채 발행 유인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

8일 투자은행(IB)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SK텔레콤(사모·6000억원), 대한항공

〈신종자본증권 발행 비금융기업〉

CJ제일제당	대한항공
인도네시아법인	포스코에너지
두산인프라코어	롯데쇼핑
한국서부발전	JW중외제약
한국남동발전	한국가스공사
현대상선	SK해운
CJ프레시웨이	효성엔지니어링
SK텔레콤	현대중공업
포스코	

[자료=전자공시시스템·KB증권]

(3700억원), SK해운(520억원) 등이 신종자본증권 (Hybrid securities)으로 자금을 조달했다.

대부분 사모 형태다.

2019년에도 적잖은 기업들이 신종자본증권으로 자금을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불확실한 경제 환경 아래에서 기업들의 신용등급에 대한 방어 노력, 기업 인수 및 합병 이후 재무안정성 관리, 2019년 신 리스기준서(K-IFRS 제 1116호) 도입에 따른 부채비율 관리 등의 이유에서 비금융기업의 신종자본증권 (Hybrid securities)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계는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재무구조개선 카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종자본증권은 국제회계기준(K-IFRS)상 자기자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때문에 회사채 발행과 달리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다. 이자비용은 감소(순이익은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또 유상증자와 달리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없이 자본 확충도 가능하다.

재계 관계자는 “채권단과 재무구조개

선 약정을 맺었거나 유동성 안정화가 필요한 기업 입장에선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효과적인 것”이라며 “선제적으로 자본을 확충해 시장우려를 불식시키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의결권이 없어 대주주의 지배력은 유지하면서 자본을 늘릴 수 있다”면서 “절차도 간단하다. 우선주나 유상증자 시 제3자배정 형태로 발행하려면 정관에 특별히 정하고 있거나 주주총회 특별결의 등을 거쳐야 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신종자본증권은 회사 내부에서 의사결정을 통해 발행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낮은 기업에게 신종자본증권은 그야말로 ‘그림의 떡’이다. 통상 만기가 짧고 선순위인 회사채에 비해 만기가 길고 후순위인 신종자본증권

은 투자자에게 보다 높은 이자를 제시해야 한다.

중견 기업 재무담당 A부사장은 “A등급 이하 기업에게도 ‘유동성 확보 및 재무구조 개선’ 측면에서 신종자본증권 발행이 필요한 상황이지만 투자 수요가 많지 않아 생각을 접었다. 투자자들에게는 발행사가 향후 30년 혹은 60년간 망하지 않고 영속할 수 있다는 믿음이 필요한데, 저신용기업들은 이를 보장해줄 수 없기 때문이다”고 전했다.

크레딧 리스크가 높은 업종의 기업들도 영구채 발행이 쉽지 않다. 특히 영구채는 후순위인 탓에 발행사의 장기 신용등급보다 한 단계 아래의 신용등급이 부여된다. A-등급 기업이 영구채를 발행하면 영구채 등급은 BBB+가 된다는 얘기도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혁신벤처업계는 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신년인사회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벤처기업협회

## “올해는 4차산업혁명 마지막 골든타임”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

혁신벤처업계가 올해를 4차 산업혁명을 위한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보고 민간 차원의 혁신성장 컨트롤 타워 역할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혁신벤처단체협의회는 8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19 혁신벤처업계 신년인사회’를 공동으로 열고 이 같이 다짐했다.

협의회에는 벤처기업협회,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여성벤처협회,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코스닥협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 등이 두루 참여하고 있다.

안건준 벤처협회장은 “혁신벤처업계가 공동 출범시킨 혁신벤처단체협의회가 지난해 ‘혁신벤처생태계 발전 5개년 계획’을 발표한 이후 각 행정부와 국회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25개의 해묵은 과제를 완전해결하고 64개 과제를 부분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며 “새해에도 혁신벤처업계는 하루 빨리 혁신벤처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혁신적 기업인들이 더 많이 탄생할 수 있도록 변함없

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 상당수는 전란 청와대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 자리에서 ▲스마트공장 지원 확대 및 경쟁력 제고 ▲SW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최저가 입찰 개선, 인재양성) ▲소셜벤처 등 청년창업에 대한 지원 확대 ▲남북경협 재개시 많은 중소벤처기업들의 북한 진출 등을 건의한 바 있다.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홍일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제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만 지난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혁신벤처기업들도 어려웠다는 것을 (이제) 이해했다”면서 “규제 때문에 신사업을 할 수 없을 만큼 정치권에서 시원하게 (문제를) 해결을 하지 못해 죄송하다”는 말로 새해인사를 대신했다.

그러면서 홍 의원은 “혁신은 어느 누구도 거스를 수 없고 희망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용어인데 올 한해 국회와 정부, 청와대가 ‘마인드 혁신’을 통해 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줬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 CJ ENM 오덴세, 유럽 주방에 뛰어든다

(테이블웨어 브랜드)

**CJ ENM 오쇼핑부문**

해외 진출 본격화... 연 200억 목표  
박람회 참가·TV 홈쇼핑 진출 계획

CJ ENM 오쇼핑부문의 테이블웨어 브랜드 ‘오덴세(odense)’가 올해 매출 목표를 200억 원으로 잡고 글로벌 시장 진출에 가속도를 낸다.

CJ ENM 오쇼핑부문은 오는 25일 밀라노에서 열리는 세계 3대 소비재 박람회 ‘HOMI’를 시작으로 오덴세의 글로벌 진출에 박차를 가한다고 8일 밝혔다. 박람회에서 오덴세는 약 20평 규모의 단독 전시부스를 마련해 참여한다. 한국 브랜드 중에서는 오덴세가 최초다.

독일 암비엔테(L’Ambiente), 프랑스 메종 오브제(Maison & Objet)와 함께 세계 3대 종합 소비재 박람회로 꼽는 ‘HOMI’는 주방용품, 가구, 조명, 인테리어 등 전세계 소비재 분야의 트렌드를 리드하는 기업의 제품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세계적인 규모의 행사다. 디자인 강국인 이탈리아에서 주관하는 전시회인 만큼 고급 소비재 분야에서는 최고의 권위를 자랑한다.

오덴세 측은 이번 단독 전시부스를 운영을 통해 글로벌 브랜드로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오덴세는 ‘아틀리에’, ‘안테’, ‘레고트’ 등 국내에서 판매 중인 7종 라인업



오덴세. /CJ ENM 오쇼핑부문

전체를 선보일 예정이다.

오덴세는 이번 박람회 참가를 통해 유럽시장은 물론, 테이블웨어 시장이 발달한 싱가포르, 대만 등 아시아 국가에 대한 진출도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와 별도로 그 동안 해외사업을 통해 구축된 중국 등 아시아 네트워크를 활용, 올해 안으로 TV홈쇼핑을 포함한 온-오프라인 사업자를 통해 오덴세를 해외 시장에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HOMI를 주최한 ‘피에라 밀라노(Fiera Milano)’사 관계자들은 북유럽 감성에 아시아적 해석을 가미한 오덴세의 브랜드 콘셉트가 박람회 참가자들에게 반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국내외 전통 브랜드들이 장악해 온 테이블웨어 시장에 지난 2017년 5월 출시표를 낸 CJ ENM의 ‘오덴세’는 지난해 일부 백화점 매장에서 포트메리온, 덴비 등 100여 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브랜드들과 함께 테이블웨어 부문 상위 5위권에 드는 등 빠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오덴세의 성공요인으로 젊은 고객들이 선호하는 북유럽 풍의 세련된 디자인과 컬러의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한 점을 꼽고 있다. 국내 고객들에게 익숙해져 있는 해외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해 한국 가구형태와 식습관에 맞는 실용적인 구성을 선보인 것도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데 성공했다는 평가다. 예능프로그램(tvN ‘윤식당’) 및 드라마(tvN ‘미스터 션샤인’, SBS ‘여우각시별’) 등에 꾸준히 제품을 선보이며 소비자들의 인지도를 높여온 것도 주요했다는 평가다.

2013년 TV홈쇼핑 PB로 첫 선을 보인 오덴세는 2017년 브랜드 리뉴얼 이후 1년여 만에 국내외 유명 브랜드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브랜드로 성장했다. 롯데, 신세계 등 전국 20여 개의 백화점을 포함해 총 36곳의 매장을 운영 중이다. 해외 브랜드와의 차별화를 위해 매년 다양한 소재와 유약을 접목하는 한편 플레이팅 관련 전문서적을 발간하는 등 주방용품 전반으로 브랜드 영역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신원식 기자 tree6834@]

## “20단계 경도 조절... 나한테 딱 맞는 높이로 꿀잠”

**웅진렌탈 ‘슬립 컨트롤 매트리스 2.0’**

웅진렌탈은 매트리스의 경도를 20단계로 조절할 수 있는 ‘슬립 컨트롤 매트리스 2.0’을 새롭게 선보였다고 8일 밝혔다.

슬립 컨트롤 매트리스는 6만 가닥의 실로 구성된 3D 입체 스트링 방식과 공기압을 이용해 매트리스 쿠션감을 20단계로 미세 조절 가능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외장 펌프에 연결된 리모콘으로 본인 몸에 꼭 맞는 단단함과 폭신함을 손쉽게 만들어 낼 수 있다.

고밀도 쿨젤메모리폼 토퍼와 폼케이스도 새롭게 적용했다. 토퍼는 냉감 소재인



웅진렌탈 ‘슬립 컨트롤 매트리스 2.0’

쿨젤과 통기성을 높인 오픈셀 구조를 통해 온도에 민감한 일반 메모리폼의 단점

을 보완했고, 매트리스 가장자리 처짐을 방지하는 폼케이스로 안정감까지 더해 보다 쾌적한 수면환경을 제공한다.

기존 스프링 메모리폼 매트리스 대비 40% 수준의 무게로 이동과 청소가 쉽고, 지퍼 탈착형 매트리스 상단 커버를 적용해 언제든지 세탁을 할 수 있다.

슈퍼싱글·퀸·킹 사이즈의 3종으로 출시하는 신제품은 렌탈 또는 일시불로 구매할 수 있다. 6년 약정 기준 월 렌탈료는 사이즈 별로 각각 2만8900원, 3만4900원, 3만7900원이며 일시불 구매가는 169만원, 199만원, 209만원이다.

[김승호 기자 bada@]

## 경기·부산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

**중기중앙회** 지자체 9곳으로 확대

중소기업중앙회는 영세 소상공인의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을 9개 지자체로 확대,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사업’은 사업시행 지방자치단체에 있는 연매출액 2억~3억원 이하의 소상공인이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경우 해당 지자체에서 1년간 매월 1만원 이상을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당초 서울, 광주, 울산, 경남, 제주 등 5개 지자체에 이어 올해부터는 부산, 인천, 대전, 경기도가 추가로 희망장려금 사업을 실시한다. 이외에 강원, 충남, 전북, 전남에서도 올해 중에 관련 사업 실시를 예정하고 있고, 기초자치단체인 청주, 양산, 광양 등도 동참할 것으로 전해졌다.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소상공인 사업주의 폐업을 대비한 퇴직금 조성을 위해 2007년 도입됐다. 현재 140만명 이상의 사업주가 가입해 소상공인의 대표적인 사회안전망으로 자리잡았다. /김승호 기자